



미국

골다공증 예방, 10대 때 청량음료 대신 우유 섭취 권장

최근 Wesleyan대학에서 최근 9년간 2,300명의 십대 소녀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우유소비량은 25% 감소한 반면 청량음료의 소비량은 3~4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메디컬뉴스투데이가 17일(현지시간)으로 보도하였다.

골성장을 한참 할 나이의 젊은 소녀들이 우유를 덜 섭취함으로써 골형성에 필수적인 칼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즈 길머(Loise Gilmer)박사는 “체내 칼슘량의 99%가 뼈에 저장되고, 뼈형성의 45%가 십대에 주로 일어나는데 이 시기에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뼈의 칼슘흡수가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고 성인기를 거치면서 뼈로부터 칼슘이 배출되므로 만일 칼슘이 부족하다면 골다공증이나 뼈의 통증,치아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리머 박사는 “청소년기에 충분한 양의 칼슘을 얻기 위해서 백해무익한 청량음료를 자제하고 가능한 우유를 많이 먹어라” 라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美·호주 FTA때 농산물 342개 관세철폐 예외”

미국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산물 1,799개 품목중 342개를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3일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에서 전체 농산물중 19.0%인

342개 품목을 자국의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정했으며 이중 담배류, 설탕류, 낙농품 등 182개 품목은 아예 관세 인하 예외 품목으로 분류했다고 강조했다.

342개 중 160개 품목은 무관세 등 저율관세 수입 물량 쿼터를 매년 늘리는 방식이 적용됐다.

또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때 멕시코에 대해 마약류 등 수입금지 품목 7개를 포함해 총 81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인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FTA를 맺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자국의 농산물을 개방 예외로 취급하면서도 상대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며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민감품목을 적극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뉴질랜드

북미 지역 사양방식 도입으로 유방염 증가

방목위주의 뉴질랜드 전통 낙농방식과 다른 북미지역이나 유럽 스타일의 젖소 사양방식이 새로운 유방염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뉴질랜드 낙농가들이 설립한 연구자문회사인 ‘덱셀’이 발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북반구의 젖소 유방염중 50~70%는 ‘이 콜리’ 균과 같은 대장균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러한 유방염이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2%정도에 불과하나 점차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북미지역 사양방식인 우사내 젖소 밀집사육, 농후사료와 첨가사료 급여 등은 젖소 주변 환경을 분뇨로 오염시킬 수 있어, 대장균에 의한 유방염 발생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20~30년간 뉴질랜드 낙농가들은 점점 더 많은 옥수수과 사일리지, 부산물등을 급여하면서 이런 유방염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다.

(Dexcel Press Release)



호주

소폭 유대인상 향의 낙농가 집단 반발 움직임

호주 서부지역낙농가들이 최대 유업체인 피터 앤 브라운사의 최근 유대인상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집단 항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세계 최대 유업체인 뉴질랜드의 폰테라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유업체는 최근 원유 1리터당 1.6센트의 유대인상을 발표한 바 있는데 낙농가들은 인상폭이 너무 작고 인상시기도 너무 늦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회사측에 집단으로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폰테라사측은 이번 인상조치가 국제적인 유제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ww.abc.net.au)



일본

낙농가 헬퍼 이용률 해마다 증가

일본 낙농가들의 휴가나 급한 불일 등이 있을 때 착유작업을 대신해주는 헬퍼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일본 전국 헬퍼협회가 발표하였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낙농가 호당 헬퍼 이용률은 1일 2회 착유이용기준 12.9일이었으나 지난 2004년에는 16.7일로 약 4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헬퍼이용조합은 모든 361개소인데 이중 333개소가 전담 헬퍼를 고용하고 있으며, 헬퍼 요원수는 모두 1천291명('05년 6월기준)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동 협회에 따르면 낙농가들도 정기적으로 휴일을 즐기려는 추세가 늘어나 전담 헬퍼를 사용하는 농가가 증가되고 있으며, 낙농가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응

하기 위해 전담요원 확보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농업신문)

낙농가 4월부터 우유생산관리 기장 본격화

일본 낙농가들이 5월말에 시행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유 생산관리 이력 장부 기장을 4월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농협 단체인 중앙낙농회회가 3월에 배포한 체크시트를 이용하여 낙농가는 사료나 위생 관리 등을 매일 기입하고 있는데 기장의 철저를 위해 원유의 출하계약서에 기장의 의무를 명기하는 것은 물론 지도 담당자가 낙농가 전체를 방문해 점검하는 등 업계가 앞장서서 원유의 안전·안심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체크시트는 중앙낙농회회가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제작하여, 3월말에 독자적으로 기장을 실시한 홋카이도를 제외한, 전국 도부현의 낙농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는데, 기장하기 쉽게 일지 형식으로 1년분을 1권에 정리하게 되어있다. 낙농가는 젖소에게 준 사료는 물론 설비의 소독·세정, 사료 및 사료용작물에 사용한 농약·비료등에 대해서도 사용시기나 수량등을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농업신문)

일일여유 해소를 위해 긴급 해외 원조추진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내 원유의 파잉 문제와 관련하여 4월4일 내각회의 후 회견에서 수급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책으로 유제품을 개발도상국이나 재해국에 원조로 활용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나가가와 농림성장관은 생산 단체 스스로가 원유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큰 일이며 외무성과 재무성과의 협의를 통해 원조수량이나 대상처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검

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잉여원유의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농협 JA 그룹 핫카이도가 3월말까지 1만톤의 원유 감산을 밝히면서, 조기건유나 저능력우 정리, 송아지 전유포육등 생산 억제에 임했으며 초중학교등이 봄방학에 접어들어 수요가 줄어든 3월말에는 유제품 공장이 받아들이는 한도량을 웃돈 약 1,000톤의 생유 폐기를 단행하여 산업 폐기물 처리를 실시한 바 있다. 일본 유제품의 해외 원조는 이제까지 총 6회로 가장 최근은 1982년 880톤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지원되면 24년만이다.

(일본농업신문)



중국

산류 유업 뉴질랜드와 1억달러 합작 투자 체결

중국 최대 분유제조업체인 산류그룹이 뉴질랜드 최대 유업체인 폰테라사로부터 합작사 설립을 위해 1억 7백만달러 투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뉴질랜드 방문중 이루어졌는데 폰테라사는 이번 투자로 합작사의 지분 43%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국영기업이었던 산류유업은 현재 개인 투자자와 종업원들이 일정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내 신선유시장의 5%, 요거트 시장의 9%의 시장점유를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내 유업시장은 명뉴유업과 같은 중국유업체가 장악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 내 소비량이 미국에 비해 2.7%, 일본에 비해서도 6.4% 수준에 불과하여 많은 외국 유업체들이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ww.stuff.co.nz)

중국에선 우유 유통기한이 세달

유통기한이 보름을 넘지 않는 우유에 익숙한 우리에게 중국의 우유는 한번쯤 의구심이 들게 마련이다.

짧게는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가 되는 우유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비교적 고가의 우유이며, 일반적인 중국의 우유는 보름 내지 한 달, 길게는 세 달 이상인 것들도 있다.

사실 중국 우유의 유통기한이 긴 이유는 방부제도 유통기한 조작도 아닌, 긴 유통기간 동안 우유의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살균방식과 포장방식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처럼 사각 종이팩을 사용하기보다는 종이팩을 봉투처럼 만든 밀봉형식으로 포장된 우유를 더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저가의 우유들은 비닐팩에 담겨 있기도 한다.

북쪽의 초원에서 방목하여 키운 소들에게서 우유를 짜낸 후 전국 각지에 보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운송 도중 우유의 변질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중국에서는 떠먹는 요구르트를 ‘싼니우나이’(酸牛乳)라고 하여 우리나라 처럼 수저로 떠먹기 보다는 빨대를 꽂아 빨아 먹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다양한 종류에 고를 때마다 한참을 망설이게 된다.

옥수수, 알로에, 블루베리, 오렌지, 람 부탄 맛 등 딸기+바나나, 알로에+키위와 같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과일을 믹스한 것까지 그 응용도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웰빙바람을 타고 호두우유나 콩우유 같은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대추우유, 땅콩우유, 보리우유, 계란과 밀우유 등 우유와 각종 음식과의 결합이 예전부터 이뤄져 있었다.

(매일경제)